

# “괜히 샀나...” 광주 수소차 운전자들 불만 높다

### 광주그린카진흥원, 충전소 6곳 운영...인프라 부족 속 요금까지 올라 충전소 직원 구인난에 운영시간 단축되고 잦은 고장에 문 닫기 일쑤

광주지역 수소차(넥쏘)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충전소 직원부족과 충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안 그래도 짧은 운영시간이 단축되거나 충전소가 문을 닫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전기차를 살걸 후회가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치솟는 수소 가격=광주그린카진흥원(진흥원)은 9월 1일부터 수소 kg당 9100원이던 단가를 94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이 돼도 광주 지역 수소 단가는 전국(전국 평균 단가는 9696원)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지난 1월 kg당 8200원이던 수소단가가 4차례 인상을 거쳐 1200원이나 올라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수소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친환경 차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수소차의 가격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수소차 운전자들의 설명이다.

유일한 수소차인 현대차 넥소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는 5만9000여원(연료 탱크 용량 6.33kg)이 든다. kg당 96.2km를 가는 넥쏘 연비를 고려하면 100km를 1만원에 가는 셈이다. 반면 대표적인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급속충전 기준(kWh당 324.4원)으로 100km 가는데 6400원이 들어 수소차보다 저렴하다.

◇구인난도 운전자에게 피해로 전가=광주시 수소충전소는 직원을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수소충전소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모집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가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소충전소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2년이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자

격증 소지자들이 굳이 충전소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말 진곡충전소 직원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했으나, 3개월 넘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었다.

문제는 구인난이 수소차 운전자에게 불편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6월에는 광주지역 유일한 ‘연중무휴’ 월출충전소 직원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이용자가 적은 진곡충전소에서 1명의 직원을 파견시켰다.

이에 진곡충전소는 2시간 가량 문을 일찍 닫게 돼 광주시 민원게시판인 ‘바로응답’에 수소차 운전자의 민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도 진곡충전소가 1인 근무체제로 바뀌면서 정해진 오픈 시간(오전 7시)보다 3시간 늦게 열고 있다.

광주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은 ‘별일 있을 정도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줬으면 한다, 운영인력을 충원하면 불편 해소될 것’이라는 글을 ‘바로응답’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인원충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의 주 52시간 근무조건을 맞춰야 해 추가 근무가 어려울 뿐더러 비정규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파견 근무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 진흥원 내 정해진 정규직 정원이 있어 수소차 충전소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선되지 않는 인프라=광주지역에서는 현재 6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월출·벽진·임암·동곡·진곡·장등 충전소(장등은 버스전용) 모두 광주시가 진흥원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6개 충전소가 모두 해마다 1~2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 광주시는 충전소를 늘리지 못하고



수소차 '넥쏘' 운전자들이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진곡충전소 앞에서 충전을 기다리고 있다.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1기당 30억원에 달하는 충전기 설치 비용 때문이다.

민간에서 올해 2월 광주시 서구 매월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숨을 돌리고 있었지만,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반년여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또 그나마 있는 충전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30일 오전 9시 기준 일반 차량이 이용 가능한 5개 충전소 중 충전이 가능한 곳은 벽진 충전소 한 곳뿐이었다. 진곡·월출·임암·동곡 충전소는 기계 점검 및 고장으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전인 29일에도 월출·동곡·임암 충전소가 장비 이상으로 충전이 불가능했다. 진곡충전소는 22일 냉각기 문제로 충전이 불가능했고 25일까지 이어졌다.

수소를 700배 압축해 영하 4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압축기와 고압호스 등에서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넥쏘' 차량 운전자 SNS 카페에서 한 운전자는 “출근 전 대기 없이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 문 열기도 전부터 나왔지만 이미 두대나 대기하고 있다”며 “충전이 힘들어서 수소차 구매를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학생증 주운 어른의 일탈

### 대학 도서관 무단 출입 음란물 시청 40대 입건

떨어진 학생증을 주워 전남대 도서관에 무단 출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타인의 학생증으로 전남대 도서관별관(백도)에 무단으로 출입한 40대 A씨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타인의 학생증을 주워 이를 이용해 전남대 도서관에 무단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도서관 2층 인쇄실 공용 PC로 음란물을 시청하던 A씨를 전남대 학생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음란물을 소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초 출소된 A씨는 갈 곳이 없어 떠돌다 전남대 기숙사 바닥에서 타인의 학생증을 주워 도서관에서 생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간단한 목욕과 빨래까지 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확인결과 A씨가 전남대 기숙사에서 주운 학생증으로 도서관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증을 회수했다.

한편 A씨의 무단 출입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대 측은 도서관 출입 시스템을 재검토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주)한양,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2심도 패소

광주 고법 “시공사 지위 없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 분쟁 항소심에서 (주)한양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형희 고법판사)는 30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양측이 중앙 1지구 사업에서 시공권 독점을 주장했지만, 시공사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SPC는 2020년 출자 지분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으며, 이후 한양은 2020년 4월 광주시

가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측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을 제시하며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관할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특례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SPC 당사자인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한양에게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교도소 과밀수용 고통, 정부가 배상해야”

광주지법 “40만원 지급하라”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과밀수용에 고통을 겪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부장판사 채승원)은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에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1인당 2㎡이하의 수용공간에서 40일동안 생활하며 고통을 겪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40일 동안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1.37㎡ 내지 1.57㎡인 혼거 수용실에서

생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교도소 측은 “과밀 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 기간의 평균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A씨는 교정 시설에 입소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간 4.61㎡의 독거 수용 거실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수인 한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불법 행위)로 과밀 수용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과밀 수용의 기간과 정도, 수용 원칙인 독거 수용에서 혼거 수용으로 이동 조치할 때 그 필요성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60대 치매 환자

### 실종 5일만에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60대 치매환자가 실종된 지 5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60대 치매환자 A씨가 지난 23일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실종 5일만에 집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주택과 주택 틈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3일 집을 나선 뒤부터 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쫓다 한 건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문하다 A씨를 발견했다.

건물 틈새가 30~50cm에 불과하고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라 A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CTV확인결과 A씨가 홀로 건물에 들어 갔던 점을 토대로 발을 잘못 디디 주택 3층에서 추락해 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